

한정사 ‘도’의 의미-화용론

김용범 * †
광운대학교

Yong-Beom Kim. 1999. Semantic and pragmatic aspects of the delimiter *to*. *Language and Information* 3.2, 85–96. This paper deals with questions involving the polysemous meanings of Korean delimiter *to*, which include existence of a sister item, polar values, emphasis, reciprocity, and concession among others.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the basic meaning of *to* is the implication of a sister proposition and that various other meanings can be pragmatically derived from the basic meaning. The pragmatic notion of emphasis is defined formally and it is shown that various meanings of *to* can be accounted for by investigating how the speaker exploits the background knowledge which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share in a speech context. According to what type of the context is made use of by the speaker, the various polysemous meanings are analyzed as involving either a simple implicature or a series of implicatures, i.e., scalar implicatures, so the various meanings of the delimiter can be attributable to the different attunement of the speaker to different kinds of context. (Kwangwoon University)

1. 서론

본 연구는 한정사¹와 관련하여 양인석 (1973), 성광수 (1978), 홍사만 (1983a), 윤재원 (1989), 본인의 줄고(1996) 등에서 논의된 의미 개념들에 대한 개념적 통합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도’의 의미에 대해서 의미-화용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도’가 보이는 여러 개의 의미개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도’의 여러 의미를 개념적으로 범주화하여 열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더구나 의미를 제시하는 데 다소 엄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행 연구들이 견해를 같이 하며 공통적으로 지적해 내는 의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몇몇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들 연구에서 발견한 공통적인 의미 요소들을 추출해내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개념을 설정하고 이 기본의미가 어떻게 다양한 화용적 의미로 실현되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최현배 (1983b)님은 한정사 ‘-도’의 용법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 ‘한 가지 도움토씨’(同一補助詞)와 ‘느낌토씨’(感動助詞)라고 명명하고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1) a. 철수가 왔다. 그리고 영희도 왔다. (동일성, ‘한 가지임’)

* 139-701 서울 노원구 월계동 447의 1번지 광운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ybkim@daisy.kwangwoon.ac.kr

† 본 논문은 1998학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본 논문의 초고를 읽어주신

염재일님, 이민행님, 최기용님과 이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최재용님께 감사사를 드리고, 아울러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도 감사사를 드린다.

1. 국어의 조사 중 특수 조사에 해당하는 형태소들에 대해 한정사라는 명명법을 쓴 양인석 (1973)을 따라 본 용어를 사용한다.

b. 사람도 많다 (느낌)

하지만 위에 제시한 개념들은 그 정의가 엄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a)의 ‘동일성’의 경우를 보면 ‘철수’로 표현된 개체와 ‘영희’로 표현된 개체가 동일한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이는 의미의 일부일 뿐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를 쓰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동일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등위접속사를 이용하여 (2)처럼 말하여도 두 개체가 동일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2) a. 철수와 영희가 왔다.

b. 철수가 오고 영희가 왔다.

즉 동일성은 ‘-도’의 의미정의에 있어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1b)의 경우도 누가 어떤 종류의 느낌을 표현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더구나 (1a)와 (1b)의 용법이 의미상 혹은 개념상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양인석 (1973)님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양인석님은 자매항의 존재 (sister member), 극치의 표현 (polar values) 및 상호성 (reciprocality)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3)의 예를 보자.

(3) a. 철수가 오면, 영희도 온다. (자매항의 존재)

b. 천재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극치표현)

c. 매리는 님도 보고 뽕도 딸겸 밖으로 나갔다. (상호성)

(3a)에서는 ‘영희도’의 ‘-도’가 자매항 ‘철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3b)에서는 ‘천재’가 극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3c)는 ‘님’과 ‘뽕’이 상호간의 자매항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분석은 ‘기술적’ 타당성은 있으나 ‘설명적’ 타당성은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3)에 제시된 의미 개념들이 서로 개별적인 것들로 인정되고 있을 뿐 이들의 의미 개념들이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성광수 (1978)님은 양인석님보다 더 많은 의미개념들을 도입하여 ‘-도’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4)에는 그 의미개념들이 4가지로 요약되어 있다.

(4) a. 영자가 숙제를 하지 않았고 철수도 숙제를 하지 않았다. (동등한 타요소의 존재)

b. 딸단 직원들도 해고되었다. (극단 예시)

c. 생존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극단 부정)

d. 낡은 것도 상관없다. (양보, 허용)

(4)에 제시된 분석은 양인석님의 분석과 대동 소이하나 ‘양보/허용’이라는 의미범주를 더 설정하고 있다. 이는 (3)에 제시된 양인석님의 분석이 다소 불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거나 ‘-도’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음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홍사만 (1983a)님과 고영근 (1976)님 등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의 연구도 위에 제시된 의미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의 연구에서 Lee (1983)님은 ‘-도’를 particle로 분류하면서 그 기본 의미를 위계 (scale)에 따른 ‘증감요소’ (‘incremental element’)로 보고 있다.

(5) (위계에 따른 증감 (‘increment along scales’))

a. 10원은 물론 100원도 빌려주겠다.

b. 10원은 커녕 일전도 못 빌려주겠다.

- c. 밥은 물론 떡도 주겠다.
- d. 밥은 물론 물도 안 주더라.

(첨가 (‘addition’))

- e. 오늘 모임에 창수도 오고 철수도 오고 명식이기도 왔다.
- f. 오늘 모임에 창수와, 철수와 명식이가 왔다.

(5a)와 (5b)에서는 ‘수량’의 위계에 따라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5c)와 (5d)에서는 개체에 부여된 ‘가치’의 위계에 따라 추가 혹은 감소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이기동님의 설명에서는 위계의 도입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나, (5a)와 (5b)에 쓰인 ‘-도’의 의미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저자들은 (5b)와 같은 문장은 극치 표현(예: ‘일전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고, (5c)와 (5d)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위 분석에서는 이것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e)는 ‘추가’(addition)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이 경우 위계를 상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임의적인 것처럼 보여 (5e)의 경우는 별도의 개념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위계가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f)에 나타난 것처럼 추가의 개념은 단순한 등위접속의 방법에 의해 가능하며, 이럴 경우 (5e)와 (5f)와의 의미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될 우려가 있어, ‘-도’의 화용적 의미가 명확하게 분석되었다고 할 수 없다².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의미범주들을 (6)과 같이 요약하고 이들이 단일 의미범주에 의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6e)처럼 ‘의외’의 의미 범주를 추가로 다룬다.

- (6) a. 자매항의 존재 (예: (1a), (3a), (4a), (5a), (5c), (5d))
- b. 극치 표현 (혹은 강조) (예: (3b), (4b), (4c), (5b))
- c. 상호성 (예: (3c), (5e))
- d. 양보, 허용 (예: (4d))
- e. 의외 (예: X는 재산이 십억도 넘는다)

3. 함축 (Imlicature)

본 절에서는 ‘-도’가 나타내는 기본 의미가 화용상의 함축의 일종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더 나아가 3, 4, 5, 6절에서는 (6)에 요약된 의미범주들이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 의미는 ‘자매 명제의 함축’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기존의 ‘자매항’의 존재라는 주장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필자의 논지와 동일한 부분이 있으나 ‘자매 명제의 존재’라는 필자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언어 자료를 설명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강조’, ‘양보’ 등의 개념을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여기서 함축(implicature)란 Grice (1975)에 제시된 것과 같은 화용상의 원리에 의해 어떤 발화의 기본 명제 내용을 기반으로 부가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명제 내용을 말한다.

2. (5e)와 (5f)의 차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 6절에서 다룬다.

3.1 자매 명제의 함축

필자는 ‘-도’의 중심적 의미를 화용적인 함축으로 보며, 더 나아가 ‘자매 명제의 함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실로 양인석님 등 많은 학자들이 ‘-도’의 기본 의미를 ‘자매항’의 존재로 파악했지만 본 논문에서 이를 수정하여 자매명제의 함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주장의 차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7)의 예를 보자.

(7) a. 존도 김치를 좋아한다.

b. 네 취직 문제로, 내가 어제 김 사장도 만나 보았다.

(7a)와 같은 경우, 기존의 주장에 의하면 ‘존’외에 김치를 좋아하는 다른 개체, 즉 자매항(sister item)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자매항’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소 논의의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만약 자매항이 단순히 하나의 개체만을 지칭한다면, 이는 화용론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화맥 상에서 대화자들이 알고 있는 개체(예: 공동의 친구나 동료들)란 항상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화맥 상에 개체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개체 중의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개체가 특정의 속성을 가진다고 말한다면, 이는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명제적 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자매항의 존재’가 필자가 주장하는 자매명제의 함축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 명제로 표현된 의미가 진리조건적 의미인지, 함축인지, 함축이라면 어떤 종류의 함축인지를 가려야하므로, 종전의 논의는 이런 의미에서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종전의 자매항의 존재라는 설명은 (7b)의 경우에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만약 (7b)의 발화자가 상대방을 취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김 사장을 만난 경우라면, 다른 노력들, 즉 명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명제들이 함축되었다고 보아야 온당할 것이다. 즉, (7b)에서 [구인광고도 주의해 보고], [요처에 전화도 해보는 등]의 노력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서는 [다른 사람도 만나보았다]는 것을 함축하기보다는 [다른 노력도 해 보았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처럼 ‘-도’의 화용적 의미를 자매명제의 존재로 본다면 (7a)와 (7b)의 경우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흔히 논의되는 자매항의 문제는 자매명제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여태껏 다소 애매하게 설명되었던 (8)에 제시된 예 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8) a. 날씨도 좋은데 밖으로 나갈까?

b. 달도 밝다.

위의 예문들은 다소 한정된 상황이 주어질 경우에 쓰일 수 있는 예문들이다. (8a)와 같은 경우는 대화자 쌍방이 모두 한가한 시간이 있거나, 조금은 무료하게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하는 등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럴 경우라면, 예를 들어 [대화자 쌍방이 한가한 시간이 있다]라는 명제가 그 맥락에서 성립 혹은 용인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8a)에 ‘-도’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명제 (즉 [상황의 여유로움])가 함축되었다고 상호간 용인하는 것이다. (8b)의 경우도 유사한 추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정한 연인끼리 조용한 시골길을 걷다가 (8b)와 같은 발화를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둘이 호젓이 있어서 기분이 한껏 좋은데] [달까지 밝아서 분위기가 더욱 좋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3.2 관용적 함축

‘-도’의 의미를 진리조건적으로 분석하여 (9a)의 의미를 (9b)처럼 생각하여 람다추출을 통해 (10)처럼 ‘도’의 진리조건적 의미를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9) a. 존도 왔다.

b. $\exists x [\text{come}'(j) \ \& \ \text{come}'(x)]$ (where $x \neq j$)

(10) $\lambda y \lambda P [\exists x [P(y) \ \& \ P(x)]]$

(9b)는 [존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더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분석은 일면 수증이가는 면도 있으나 ‘표현된’ (expressed or literal) 의미와 ‘함축된’ (implicated) 의미 사이에 혼동을 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여기서 ‘표현된’ 의미란 진리조건적 의미를 말한다. 진리조건적 의미는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그 모델에서 한 문장, 예를 들어 문장 ‘존이 왔다’와 (9a)가 진리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리조건적 의미의 차이로 볼 수 없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함축된 의미가 쉽게 추론될 수 있는 (11a)와 (11b)를 비교해 보자.

(11) a. 존이 김치를 좋아하고, 메리가 김치를 좋아한다.

b. 존이 김치를 좋아하고, 메리도 김치를 좋아한다.

(11a)와 (11b)가 모든 상황에서 진리치가 같다면, (11a)와 (11b)는 진리조건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위에서 ‘-도’의 ‘표현된’ 의미는 ‘-가’의 ‘표현된’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11a)가 맥락에 따라 다소 매끄럽지는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이 문장은 분명히 문법적인 문장이고, 위의 두 문장이 나타내는 진리치는 진리조건적으로 동일하다. 즉 존과 메리가 김치를 좋아하는 경우라면 그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11a)나 (11b)를 사용할 경우, 어느 것도 거짓이 안 되는 것이다. 즉 (11a)가 사실이면 (11b)가 사실이고 (11b)가 사실이면 (11a)가 사실이다. 따라서 ‘-도’는 진리조건적인 의미에서 ‘-가’와 실제적인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진리조건적 의미를 바탕으로 한 (10)의 분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10)과 같은 의미를 결국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함축으로 본다면, 이것이 함축에 관련된 검증법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Grice에 의하면 함축은 대화함축 (conversational implicature)과 관용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관용함축은 비진리 조건적(non-truth-conditional)추론으로서 특정의 어휘 등에서 나오는 함축적 의미를 가리킨다. 관용함축은 대화함축과는 달리 취소불가(non-cancellable)의 특징과 분리가능(detachable)하며, 계산불가능(uncalculable)한 속성을 지닌다.

우선 취소불가능성을 검증해 보겠다. (12)에 나타난 대화 함축과 (13)에 나타난 관용 함축의 차이를 보자.

(12) A: Did you see them all?

B: Well, I saw (at least) some. Er ... yes, in fact I saw them all.

(13) 가: 이번 연수생 5명 중에서 존은 김치를 좋아한다.

나: !응 그래, 메리도 좋아한다.

그런데 메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싫어한다.

(12)의 대화는 대화함축이 개입되어 있고 ‘some’에 함축된 내용 즉 ‘[not-all]’의 의미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나 (13)의 경우에는 그러한 취소가 어색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에 의해 함축된 명제가 관용함축임을 가리키고 있다.

분리가능성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를’ 같은 격표지를 한정사 ‘-도’ 대신에 쓰면 함축된 의미가 없어지는가? 이는 (14b)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함축된 의미는 사라지며, ‘-도’에 의해 야기된 함축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14) a. 존은 김치도 좋아한다.

b. 존은 김치를 좋아한다.

(14a)에는 이제껏 논의한 대로 [존이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함축이 있고 (14b)에서는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 이 검증 또한 '-도'에 의한 함축이 관용함축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그런 함축이 '계산 가능'한가? '-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완전한 함축명제를 계산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함축의 '계산'이란 화용상의 격률을 적용하여 그 격률을 지키기 위해 상정해야 하는 의미 내용의 계산인 바, 이는 포괄적인 의미가 화용 상의 격률에 의해 협소화되어 그 의미가 명료화될 수 있음을 말한다. '-도'의 경우에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와 협소화된 의미를 구분할 수 없다. 이는 함축의 취소가능성에서 '-도'의 경우 취소 불가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격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함축 명제가 어휘적 의미에서 함축이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검증에 의하면 '-도'가 나타내는 화용적 의미 내용은 관용함축 (conventional implicature)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의 기본 의미가 자매 명제의 함축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6)에 요약된 다른 개념들 즉 '강조', '상호성', '양보', '의외' 혹은 '놀람' 등이 어떤 화용적 기제에 의해 실현되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4. 강조

본 절에서는 '-도'가 나타내는 강조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강조'에 대한 개념 확립을 시도한다.

4.1 강조와 위계함축

어떤 문장이나 진술이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강조'는 의미론의 다른 기본 개념으로부터 정의될 수 있을까? 아니면 화용적인 개념일까? 우선 Kadmon and Landman (1993)의 '강화' (strengthening)의 개념을 소개하며 이를 기초로 '강조'를 정의해 보고자 한다. Kadmon/Landman은 any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강화' (strengthening)가 any의 의미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15) Strengthening (Kadmon and Landman 1993: 368)

Any is licensed only if the widening that it induces creates a
stronger statement, i.e., only if
the statement on the wide interpretation \implies
the statement of the narrow interpretation

여기서 확대(widening)란 화맥(context)의 차원에 따라 명사의 해석이 확대되는 것을 나타낸다. 단순히 부정관사가 붙은 (16a)와 (16b)는 그 화역에서 고려되고 있는 개체의 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6) a. 책은 아이들에게 유익하다.

b. 어느 책이라도 아이들에게 유익하다.

(16a)의 경우는 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어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고려 대상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양서'를 생각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6b)의 경우는 (16a)에서 고려된 대상 외에 폭력성이나 오락성 등 책의 질에 크게 관계없이 상정된 더 넓은 범위의 책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느'라는 표현이 책에 관련된 화역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5)에 의하면 (16b)의 '어느'는 화역의 확대를 유도하고 (16b)가 성립하면 (16a)가 성립하므로 (16b)가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Kadmaon/Landman이 제시하고 있는 '강화'라는 개념은 진술된 명제와 명제 사이에 존재하는 명제의 상대적 '미세성'이라고 볼 수 있다. Kadmaon/Landman의 이러한 정의

는 *any*나 아무, 어느 등 흔히 말하는 극치 표현의 경우에는 잘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조의 표현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17)과 (18)에 예시한 것처럼 ‘미세성’ 뿐만 아니라 ‘과장’에 의해 강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필자가 사용하는 미세성과 과장성이란 개념은 사용된 표현이 외연(denotation)으로 나타내는 집합의 크기와 사용된 함수 표현의 단조성(monotonicity)과 관련되어 정의된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목이 말라서 말하는 경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다음의 예를 보자.

- (17) 미세성 강조
 - (a) 물을 한 컵도 못 마셨다
 - (b) 물을 한 방울도 못 마셨다.
- (18) 과장성 강조
 - (a) 물을 한 주전자라도 마시겠다.
 - (b) 물을 한 말이라도 마시겠다.

‘미세성’은 상향함의(upward entailment)가 일어나는 경우 관측할 수 있는 명제끼리의 상대적 진술의 강도라고 정의하면 ‘미세성’의 정도에 있어서 (17b)는 (17a)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7b)가 성립하면 (17a)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과장성’은 하향함의(downward entailment)가 일어나는 경우 성립하는 명제간의 상대적 강도로 ‘과장성’의 정도에 있어서 (18b)는 (18a)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18b)가 성립하면 (18a)가 성립하기 때문이다³.

위와 같이 ‘강조’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Kadmon/Landman의 설명은 ‘미세성’ 강조에는 적합하지만 ‘과장성 강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18b)에서 (18a)로의 추론은 성립하나 (18b)의 화역이 (18a)의 화역보다 오히려 좁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더 나아가 강조의 개념을 추론되는 명제의 수(cardinality)와 결부시키고자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9) 미세성 강조
 - a. 물을 한 컵도 못 마셨다
 - b.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셨다.
 - c. 물을 한 방울도 못 마셨다.
- (20) 과대성 강조
 - a. 물을 한 주전자라도 마시겠다.
 - b. 물을 한 말이라도 마시겠다.

3. 강조를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Given argument expressions and in propositions P and Q, respectively, statement B translated as Q is stronger than statement A translated as P if and only if

- (i) infinitesimal emphasis (미세성 강조)
 $\text{Det}(\beta)$ is a subset of $\text{Det}(\alpha)$ and there is an inference $f_B(\beta) \implies f_A(\alpha)$ available, where functors f_A and f_B are defined with respect to α , and β in P and Q, respectively.
- (ii) hyperbolic emphasis (과장성 강조)
 $\text{Det}(\alpha)$ is a subset of $\text{Det}(\beta)$ and there is an inference $f_B(\beta) \implies f_A(\alpha)$ available.

한 의미의 논평자가 지적했듯이 (i)과 (ii)의 추론은 화용적 추론이 아니라 의미론적 추론이라고 볼 수 있다.

c. 물은 한 가마술이라도 마시겠다.

(19)의 경우는 미세성에 있어서 (19c)가 가장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추론관계가 성립한다.

(21) (19c) \implies (19b) \implies (19a)

(21)에 보인 것처럼 (19)에 제시된 명제들만을 고려한다면 (19c)로부터는 두 개의 명제를 추론할 수 있다. 반면 (19b)로부터는 하나의 명제를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추론되는 명제들의 합으로 나타난 상대적 크기가 해당 명제의 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0)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20c)가 가장 강한 명제임을 알 수 있고 필자의 정의에 의하면 강조는 추론되는 명제의 수⁴를 계산하면 된다. 이는 Fauconnier (1975)에서 지적했듯이 개체들이 화역에서 정해지는 차원에 따라 위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따라서 강조의 본질은 추론되는 위계함축(scalar implicature) 등 함축되는 명제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조’의 정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강한 표현들을 설명할 수 있다.

(22) a. 오직 이 사람만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b. 본인은 매우 오랜동안 이 일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c. 이것이 XY당의 전략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d.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예를 들어 (22a)를 보자. 최재용 (1996b)님에 의하면 ‘-만’은 배타성뿐만 아니라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22a)의 진술이 어느 선거 유세 장에서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발언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후보는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없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 이것이 화자를 제외한 각 후보자에 대해 성립한다고 하면 (22a)는 (후보자 수 - 1)개의 명제를 함축하고 있다. (22b), (22c), (22d)의 경우도 유사한 함축을 이끌어 낼 수 있으나 이는 본 논문의 논지와 크게 관련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2 ‘-도’의 의미와 강조

위에 제시된 강조의 정의를 ‘-도’의 의미와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우선 (23)을 보자.

(23) a. 천재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3b)

b. 천재가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c. 아인슈타인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d. 생존자가 한 사람도 없다 (=4c)

화역의 개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의 견지에서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위계를 이루고 있다면 천재는 그 위계의 맨 꼭대기(일종의 극치)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23b)와는 달리 (23a)는 자매 명제의 함축을 의미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천재가 아닌 개체]들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명제가 우리의 배경지식에 의해 추론된다. 여기서 성립하는 명제의 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수효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3c)의 경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아인슈타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아인슈타인 외에 어

4. 추론되는 명제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어떤 진술에서 추론된 명제에 동어반복(tautology) 등과 같은 항진명제를 등위접속(conjunction)시키거나 이절(disjunction)시키면, 진술의 강도(strength)에 관계없이 한 진술로부터 무한개의 명제를 추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추론되는 명제는 단일 명제이어야 하거나 복합명제인 경우 각 단위 명제가 화용적으로 유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일 필요가 있다

면 한 개인이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추론을 하게 한다. 따라서 추론되는 명제가 하나 밖에 없어 ‘강조’ 표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아인슈타인을 천재로 알고 있는 경우 그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경우이다 이는 (23a)와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여 여러 개의 명제를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두 가지 해석 중 전자는 문맥에 기반을 둔 해석이고 후자는 배경지식에 기반을 둔 해석이라는 것이 다를 뿐 ‘도’의 기본 의미는 동일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위계 함축이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추론되는 일련의 함축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 용법으로 쓰인 ‘도’의 강조 의미는 기본의미인 자매명제의 함축에 더하여 위계를 이룬 개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화용적 추론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4.3 직접화백과 간접화백

‘도’의 용법과 관련하여 직접화백과 간접화백의 분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24)의 경우를 보자.

(24) A: 메리는 1번 문제를 못 풀었데

B: 그래, 철수도 그 문제를 못 풀었어.

여기서 철수가 천재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24)을 어조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고 발화를 한다면 이는 단순히 직접적 맥락을 이용한 단순 함축이 생길 것이다. 즉 메리가 문제를 못 풀었는데 그와 아울러 철수가 못 풀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흔히 얻을 수 있는 해석이다. 즉 (24B)는 이미 화백에 주어진 개체(즉 메리)에 일차적으로 유의하며 그 개체가 문제를 못 풀었다는 함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24)에서 위계적 함축도 얻을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어조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즉 그래의 그에 강세와 높은 어조를 가하며 [그래 당연하지]의 뜻이 되도록 발음하면, 간접적 화백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이때 [그래 당연하지 그것도 몰라] 식의 발음은 ‘당연’의 뜻이 내포 되어 우리의 배경지식(간접 화백)과 관련됨을 짐작할 수 있거나 어조의 차이가 추론의 차이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간접화백(배경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양보’, ‘놀람’ 등의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5. 양보

다음으로 ‘-도’의 의미로서 흔히 ‘양보’라고 분석되는 경우를 보자.

- (25) a. 낡은 것도 괜찮다.
- b. 낡은 것이라도 괜찮다.
- c. 눈이 오더라도 출발한다.

위에서 ‘-도’가 나타내는 의미로 파악된 ‘양보’란 무엇인가? ‘양보’는 어휘속에 있는 의미인가 아니면 ‘강조’의 경우처럼 우리의 배경지식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의미현상인가?

우선 일상적인 의미에서 양보란 ‘보다 낮거나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데 사정상 ‘그렇지 못한 대안’을 취하거나 받아들인 경우에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양보의 개략적 의미라면, 양보의 의미요소에는 [받아들인 것]과 [달리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대안]을 상정해야한다. 이런 대안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자매명제의 존재와 연결된다.

그러면 ‘양보’에서 나타나는 대안은 위에서 논의된 단순함축(단순히 ‘첨가’의 의미로 나타나는 대안)과 위계함축(강조의 의미에서 나타나는 대안들) 등과는 어떻게 다른가? 위에서 언급한 [달리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대안]은 발화시의 화백상황과는 다른 별도의 상황이 있어야함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발화상황과 다른 상황(혹은 조건)하에서라면 그 대안을 택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양보에 나타난 대안은 서법적(modal)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5a)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면 새 것]을 취할텐데, [현 상황에

서]는 [현 것]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5c)의 경우도 [상황이 달랐더라면 눈이 안 오는 경우] 출발할 텐데 [현 상황에서]는 [눈이 오는 경우]에라도 출발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⁵.

이렇게 보면 양보는 발화 상황과는 다른 별도의 대안 상황의 존재와 그에 따른 대안의 존재라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화용상의 기작에 의해 대안 상황의 존재가 ‘-도’의 의미에 도입되는가이다. (25c)와 같은 경우는 ‘-도’가 하나의 상황을 기술하는 절(clause)에 붙어 있어서 대안 상황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즉 이런 경우 대안 상황은 [눈이 안 오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한정되고 그 대안 상황 속의 대안은 [눈이 안 오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또한 (25b)는 (25a)보다 양보의 의미로서 더 자연스러운데, (25b)의 ‘-이라도’는 그 속에 ‘-이다’라는 술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⁶이 있듯이 ‘-도’ 앞에 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안 상황을 상정하기가 쉽다.

(25a)의 경우는 비록 대안 상황을 함축하는 문장구조가 아니더라도 ‘낯은 것’과 ‘새 것’이라는 순접게 대비되는 대안의 존재 때문에 양보의 의미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다.

(26) a. 칠수도 선발할 것이다.

b. 늙은 선수라도 선발할 것이다.

만약 칠수가 ‘늙은 선수’라면 (25a)와 (25b)의 관계가 (26a)와 (26b)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25a)에서 와는 달리 (26a)에서 양보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칠수’라는 표현이 ‘낯은 것’이란 표현과는 달리 대안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익히 아는 상황에서는 양보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대안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26)의 경우는 큰 텍스트 중 일부로 보여지며, 그 ‘대안 상황’은 그 화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⁷.

(26)의 논의는 또한 화맥(주로 간접화맥)에 존재하는 개체가 이분법적으로 배열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양보의 의미는 우리의 화맥을 한 군의 개체(혹은 부분집합)과 그 외의 개체(혹은 여집합)의 이분법적 배열과 그 양 개체군에 대한 선호 여부 혹은 가치 부여가 우리 배경 지식의 일부로서 이루어져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6. ‘의외’ 혹은 ‘놀람’

본 절에서 다룰 의미 개념은 의외라는 개념과 관련된다. ‘도’가 (27a)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흔히 의외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런 개념이 지금까지의 필자의 주장에 의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27) a. X씨는 재산이 십억도 넘는다 (=6e)

b. Y씨는 재산이 일억도 넘는다.

5. 이런 서법적(modal)인 의미 때문에 *if* 혹은 *even if*가 양보의 뜻으로 쓰이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양보를 엄밀하게 정의한 문헌을 필자는 아직 접하지 못하였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Concession

Given propositions P_1, P_2 and Q , the sequence $\{P_1, P_2\}$ or $S(P_1 \rightarrow P_2)$ involves concession, if and only if

(i) there is an inference $S(P_1 \rightarrow P_2) \Rightarrow S(Q \rightarrow P_2)$

(ii) $S(Q) \cap S(P_1) = \phi$

(iii) $(Q \rightarrow P_2)$ has a greater likelihood than $(P_1 \rightarrow P_2)$ according to the background knowledge, where $S(X)$ is a set of situations which support proposition X .

6. 성광수(1978: 172-173)를 참고하기 바람

7. 예를 들어 구단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든가, 혹은 젊은 선수 중 유능한 선수가 없다는가 하는 경우 등 앞 선 대화의 내용이 이런 ‘다른 상황’을 결정해 준다고 볼 수 있다

c. Z씨는 재산이 삼천도 안된다.

(27)에 쓰인 ‘-도’의 의미는 모두 같은 것, 즉 ‘의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X, Y, Z에 대한 배경지식에 의해 그 적절성이 결정된다. 만약 X씨가 억만장자의 상속자이고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몇 천억 부자라면 (27a)와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Y씨의 경우를 보자. Y씨가 3억 재산을 가진 50대의 장년이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진리조건적으로 보면 (27b)는 위와 같은 가정하에서 최소한 사실과 부합하는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27b)는 Y씨의 [재산이 일억이 넘는다]는 것과 진리조건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27b)와 같은 진술이 Y씨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위 진술의 적절성이 Y씨의 재산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 지식에 비추어 Y씨가 가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재산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와 이를 만족시키거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도’의 용법에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위의 논의에서 추론할 수 있다.

사실 (23a)에서 ‘천재도 그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할 때는 천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23a)가 강조를 나타낼 뿐 아니라 ‘의외’도 나타내고 있다. 다만 (27b)에서는 [이번에는 (27b)가 적절하도록 Y씨가 평범한 청년이라고 가정한다] Y에게 기대되는 재산이 얼마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었을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초과되는 액수의 재산을 가졌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대치가 복수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사실 어느 개인에 대한 재산의 기대치는 엄밀하게 설정할 수 없다. 그 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다른 개인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여러 변수를 설정하여 추측을 하게 되고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기대치가 복수로 상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Y씨의 재산이 ‘일억’도 넘는다라는 말은 Y씨의 재산에 대한 여러 개의 기대치를 넘고 ‘일억’까지도 넘는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최대로 잡은 기대치를 넘어설 경우 ‘의외’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 위에서 언급된 ‘일억’은 여러 변수가 작용한 최대의 기대치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최대의 기대치가 얼마나 부풀려 잡혔느냐에 따라, 즉 기대치의 과대성에 따라 (그리고 실제 표현된 액수가 그 기대치를 넘을 경우) 의외성이나 놀람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24)의 경우 ‘의외’라는 개념도 복수개의 기대치에 대해 성립하는 복수 명제의 함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고 기대치에 과대성이 크면 클수록 하위 기대치의 숫자도 많아져서 강한 진술의 효과를 가져온다. 즉 ‘의외’란 우리의 배경 지식에 근거한 복수의 기대치를 성립시키는 위계적 명제의 함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외’가 나타난 문장에서는 강한 진술(강조)의 해석이 나타날 수도 있다.

7. 상호성

‘-도’의 용법 중에서 (28)의 예들은 또 다른 경우를 나타낸다.

(28) a. 오늘은 할아버님께서 생신을 맞으셨다. 삼촌도 고모도 오셨다.

b. 거기 가면 빵도 따고 남도 볼 수 있지.

(28a)의 경우는 할아버지의 생신일에 오게끔 기대되는 사람들, 혹은 으례히 오는 사람들이 발화자의 의식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삼촌이 오고] [고모가 오는] 순서가 문제가 없이 없이 동시에 상호 함축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명제를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28a)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모가 오면 그날 삼촌도 오는 것이 참이라고 기대되고, 삼촌이 혹시 먼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날 고모도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8b)의 경우는 [남을 보고]와 [빵을 따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상황을 고정화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정황적으로 보면 빵을 따는 것이 주이고 남을 보는 것은 부차적인 것인데, 이들의 관계를 (28a)에서처럼 상호 함축적으로 만듦으로써, 상황의 순서나 중요도가 의미가 없게 되고 결국은 본말의 구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28)의 예를 (29)의 예와 비교해 보자.

- (29) a. 오늘은 할아버님께서 생신을 맞으셨다. *삼촌도 외판원도 왔다.
 b. 거기 가면 빵을 따고(나서) 잘하면 님도 볼 수 있지.

(29a)에서 [외판원]은 [고모]와는 달리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개체이고 발화자의 의식 속에 없는 개체이다. 따라서 (29a)는 필자의 설명에 의하면 어색할 수밖에 없다. (29b)의 경우는 [님을 보는 것]은 [빵을 따는] 사건과 더불어 쉽게 기대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님’에만 ‘-도’가 붙어 있어도 가능하다. (29b)의 ‘빵을 따고’에는 화용론적으로 함축된 내용이 없으므로 그 만큼 [님을 보는 것]의 의미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28b)의 ‘빵도 따고’에는 [님을 보는 것]이 함축되어 있어 이것이 ‘빵도 따고’의 의미의 일부가 된다. 또한 (29b)와 (28b)의 ‘님도 보다’에는 [빵도 따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어서, [빵도 따다]는 의미가 화용론적으로 중복(강화)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화용상의 차이가 결국 (28b)에서보다 (29b)에서 [님을 보다]의 의미가 약화되는 원인이 된다.

8.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도’의 기본의미를 자매명제의 함축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강조, 양보, 의외, 상호성의 화용적 의미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강조의 의미를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이런 정의에 부합하도록 ‘-도’에 나타난 강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다. 양보와 관련하여서는 대안 상황과 대안 명제가 존재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다소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한 예로 ‘양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믿는다. ‘의외’와 ‘상호성’의 경우는 간단하지만 화자가 간접적인 대화 맥락(배경지식)과 직접 맥락을 각각 이용하여 복수의 함축 명제를 이끌어 내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도’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매명제의 함축이고 화자나 청자가 어떤 맥락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함축된 명제의 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아무’와 관련된 의미 해석일 것이다. 이는 소위 부정극어로서 지칭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다. 본 연구가 부정극어에 관련된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본인의 줄고(1996)에서도 ‘아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아무’와 ‘-도’가 빈번히 결합하여 의미해석상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아무’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 1976. 特殊助詞의 意味. 문법연구, 3.
 김용범. 1996. 국어와 영어의 극성어에 대하여. 광운대논문집, 제 25호.
 성광수. 1978. 국어조사의 연구. 형설출판사, 서울.
 양인석. 1973. Semantics of delimiters. 어학연구, 9(1-2):673-692.
 윤재원. 1989. 국어조사의 담화 분석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형설출판사, 서울.
 최재웅. 1996. ‘-만’의 작용역 중의성. 언어 21, 673-692.
 최현배. 1983. 우리말본. 정음사, 서울. 열번째 고침펴냄.
 홍사만. 1983. 국어특수조사론. 학문사, 대구.
 Fauconnier. 1975. Pragmatic scales and logical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6:353-375.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gan, editors, *Syntax and Semantics*, volume 3. Academic Press, New York, pages 41-58.
 Kadmon, N. and F. Landman. 1993. An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353-422.
 Lee, Keedong. 1983. *A Korean Grammar on Semantic-Pragmatic Principle*. Hankook Moonhwa Sa., Seoul.

접수일자: 1999년 10월 8일

게재결정: 1999년 11월 25일